

## 젊음의 이미지

안수민

미술에서 젊음과 새로움의 추구는 필연적이지만, 그런 신선힘의 쇄도는 무감각증을 불러 일으킨다. 젊음, 청년, 신진 등의 단어는 이미 의미를 상실하고, 더는 감상을 남기지 않는 텅 빈 단어가 된 것 같다. 젊음이 상징하는 것이 참신성, 시대와의 조응, 권위에의 도전 등이라면 그것은 미술의 본질이기도 할 텐데, 젊은 미술이라는 동어반복적 표어가 필요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젊은 모색 2025: 지금, 여기》의 관람 경험을 기록하고 되짚어봄으로써 미술 속 젊음의 키워드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젊은 모색》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정례 전시인만큼, 오늘날 한국에서 어떤 미술이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제도의 부름을 받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젊음과 새로움으로 합의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올해의 《젊은 모색》에는 15팀의 작가와 컬렉티브가 참여했고, 다양한 매체의 신작이 중점적으로 전시되었다. 60여 점의 작품은 맥락에 따라 4가지 섹션(기술 너머, 관계 맺기, 타자로서 타자에게, 함께 하기)으로 분류되어 관객을 기다린다.

내가 이번 전시에서 받은 주된 인상은 의외의 생동감과 활기였다. 사실상 “젊음, 지금, 여기”의 세 단어에서 받은 식상함으로 색안경을 끼고 전시장에 방문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다매체와 주제 의식, 대안성으로 조성된 전시 공간은 흥미롭고 풍성하게 보였다. 특히나 과천관의 건물을 주제 삼았던 《젊은 모색 2023: 미술관을 위한 주석》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려했다.

일반적인 동선을 따라 1전시실로 입장하면 관객은 가장 먼저 ‘기술 너머’ 섹션을 마주하게 된다. 1전시실은 어두운 조명으로 관객을 감싸듯 불러 들이는데, 그 내부는 마치, 젊다는 미술을 감상하려 온 관객을 맞이하는 수상하고도 청결한, 무심한 듯하면서도 환영적인, 실험실과 같은 첫인상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따라 걷기를 제안하는 송예환의 〈인터넷 지도〉(2025), 그리고 상희의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유랑의 밀맞춤〉(2025)은 관객의 몸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면서 전시의 여정에 관객을 효과적으로 몰입, 참여시켰다. 이

후 영상, 입체, 평면 등 매체가 고르게 분배된 1전시실과 2전시실을 따라 자율적으로 작품을 관람하고 중앙홀로 나오면 업체eobchae의 <벽등설>(2025)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풍경은 나에게 마치 이번 전시가 주는 ‘젊은 느낌’에 찍는 마침표와도 같이 다가왔다.

전시의 섹션 구분은 전반적으로 작품의 맥락, 주제와 완전히 밀착하기보다는 느슨한 불협도 포함하는데, 이는 유기체적인 작업을 서재의 제자리에 위치시키는 일의 불가능성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큐레이팅 전략의 하나로 느껴지기도 했다. 가령, 앞서 언급한 업체의 <벽등설>은 그 작품이 제작된 과정의 “유연한 협업”을 특징으로 ‘함께 하기’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작품이 다루고 있는 미래지향적, 기술지상적 상상력에 집중한다면 ‘기술 너머’로 분류한 판본도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배치에서 <벽등설>의 시청각적 차극은 관람 경험을 포괄하는 역할도 함께하는 듯했다.

다매체 구성은 오늘날 한국의 젊은 미술에 대한 폭넓은 조감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획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으나, 한편으론 카탈로그적 나열, 테마파크성의 달성처럼 다가오기도 했다. 섹션 구분과 함께 인공적/무작위적인 작품 배열은 다채로움을 재현하면서 젊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유지한다. 미술관을 나올 때에는 내가 걸음으로 통과한 전시 공간이 실은 잘 조성된 다양성의 온실은 아닌지 한 번쯤 숙고하게 되었다.

이런 상념의 연장에서 기획은 어떻게 젊음을 형상화했고, 젊음의 프레임으로 어떤 독해를 유도했는지 고민해 본다. 젊음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유용할지도 모르지만, 작업에의 진정한 접속을 방해하기도 한다. 나의 과거 미술 경험을 되짚어보면 특정 프레임과 실제 감상 사이의 불통은 이미 만성적이다. 참신하고 흥미로워 보이는 전시가 있어 보려 가면 실망스럽다. 농담 같은 기획과 참신이란 이름의 피상성이 지겨워진다. 혹은 반대로, 젊다고 소개되는 미술을 보려 가서 그 새로울 것 없음에 망연해져 돌아오는 일도 잦다.

이번 《젊은 모색》을 관람하며 모든 작품을 실체 없는 젊음에 견주어 대상화하는 나를 발견했다. 작업 속에서 젊음이라는 이름의 달성을 수 없는 이상향의 요소를 물색하고, 젊음 혹은 비젊음으로 작품을 이분화하려는 편협한 관람 태도가 형성된 것이다. 한 참여 작가의 물리적 젊음을 언급하는(은근히 강조하는 듯한) 도순트 내용을 우연히 귀동냥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젊음에의 매몰된 감상은 한동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었다고 이 자리에 고백한다. 이는 나만의 사적 경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시선이 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일반 명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젊음이라는 키워드에서 관객이 자동적으로 피워올리는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이 답을 찾는 것은 전시실 내에서 젊음과 새로움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해묵은 질문이다. 제도 안의 새로움이란 곧, 자주 용인된 적 없던 것의 허용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영역 넓히기 혹은 공간과 자본의 베풂이 아닌지 새삼스럽게 질문한다. 미술관 안으로 당연한 듯 힘겹게 침투하는 불안정성, 일시성, 폭력, 열등함, 문제적이고 합의 없는 것 등을 새로운 것으로, 급진성으로 포장하는 것은 괜찮은가? 필히 누군가에게는 매일의 루틴이기에 지겹고 구태의연한 것일 텐데.

젊음의 이미지 소비로, 작가가 도전자가 되고 작업은 과정 중의 실험이 될 때, 모든 것이 임시의 것으로 격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니 제도의 부름을 ‘아직’ 받지 못한 이들의 작업이 제도화될 때, 그것을 간단히 ‘새로운 세대’의 것으로 인식하고 치칭하는 일을 경계하자고 주장해본다. 젊다는 미술들이, 무르익고 풍화되기 전의 청년들이 내는 잠깐의 소란으로 축소되지 않기를,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낙관의 재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전시의 부제, “지금, 여기”라는 표현대로, 분열적이고 불안정한 세계의 “지금, 여기”를 실현하는 미술들이 관객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안수민은 어린이 미술교사이자 프리랜서 작가이다. 미술과 평행한 생활을 하며 글을 쓰고 전시를 본다. 서양화와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전시 《실리 힐리 밀키 쇼》(2023), 《서울 천사의 시》(2025)에 글을 썼다. 그 밖에 『홋카이도 QnA』(2020) 등 몇 권의 자가출판물을 제작했다.